

추석 연휴 이후 규제전에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10월까지 전국에서 4만6785가구 작년보다 1만8484가구 많은 수준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9월 중순 이후에 대거 집중된다.

당초 10월 초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건설사들은 상한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물량을 미리 소진하려는 모습이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9월 셋째주에서 10월 까지 전국에서 4만6785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작년 동기(1만8484가구) 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1575가구, 지방광역시 1만657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3000여가구, 인천 7200여가구, 서울이 1100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특별

<지방광역시 및 지방도시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건설사	분양시기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역 오페라 W	1088	1088	78~84	아이에스동서	10월
대구 수성구 옥수동 25	대구 수성 한신더휴	667	667	76~106	한신공영	10월
대전 중구 목동 3-12(목동3구역재개발)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993	715	39~84	포스코건설,계룡건설	9월
대전 서구 도마동 179-30번지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1881	1441	59~84	대림산업,한화건설	10월
울산 동구 전하동 300-384 외	KCC스위첸 웰츠타워	635	635	59~84	KCC건설	9월
광주 북구 우산동 470일원(광주우산구역)	광주우산1	2564	1640	59~160	GS건설,금호건설	10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1187일원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998	212	59~84	대림산업	10월
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166-1(효자구역)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1248	950	59~101	현대건설,금호건설	10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 1313번지일원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614/203(오)	614/203(오)	84~172/84(오)	한화건설	10월
경남 거제시 고현동 1102일원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1049	1049	78~98	대림산업	10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일원	동홍동 센트레빌	212	212	59~84	동부건설	9월
전남 여수시 신월동 산237번지	경도 비전 지에이그린웰	391	391	84	지에이건설	9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블록	지웰시티	685	613	68~101	신영	10월
충북 청주시 율량동 1502일원	율량 금호아울림 센트로	748	451	59~84	금호건설	9월

*아파트 일반분양 9월16일~10월말 분양기준

/자료=부동산인포

한 문제가 없는 한 계획된 물량을 규제 시행 전 소진하려는 분위기다”라며 “다만 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 공급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신규분양에 관심이 높아져 일부에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에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로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래미안라클레

시’를 분양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후분양을 추진하다 선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다. 서울지하철 7호선, 9호선 등의 역세권이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중구 운서동에서 ‘운서역 SK뷰 스카이스티’ 1153가구, 서구 가정동에서는 ‘루원 시티 2차 SK리더스뷰’ 1789가구를 분

양한다.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안산시 백운동 백운연립2단지를 열고 짓는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초지역 역세권이다.

수원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교동 팔달115-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

스테이트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에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과 SRT환승역인 지제역 역세권이다. 대구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북구 고성동에서 ‘대구역 오페라 W’ 1088가구를 분양한다. 이외에 한신공영이 수성구 옥수동에서 ‘한신더휴’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대전에서는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이 중구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을 이달 분양한다.

이외에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서구 도마동에서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를 10월 분양한다.

전북 전주에서는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효자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를 10월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경남 거제시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지에 짓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를 분양한다. 단지는 유립식 주거타운으로 건설되며 사우나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증권사 RPA 도입... 업무시간↓ 효율은 ↑

(로봇프로세스자동화)

기존 수작업 하거나 전산처리 업무 세부정보 수집·자료 오류 확인 등

주요 증권사가 로봇을 이용한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RP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리스크관리, 투자은행(IB) 분야 등에서 세부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오류를 확인하는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한껏 끌어올린 증권사들은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양증권 등이 업무자동화 시스템인 RPA를 통해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있다.

RPA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로봇(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솔루션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올 상반기 1차적으로 5개 부서에 RPA 시스템을 적용했다. 데일리 업무 자동화를 통해 대량 데이터를 매치시키는 등 단순 업무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적용해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RPA를 도입해 약 8개월간 약 26개의 업무를 줄이고 1만5000시간의 업무시간을 절감했다. 무엇보다 리스크관리 부분에서 시간 절감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거나 일부반전산처리해 많은 시간이 걸린 신규상장종목의 법인등록번호나 상장종목의 분기별 재무정보 등 수집을 로봇이 처리한 결과 약 7000시간 절감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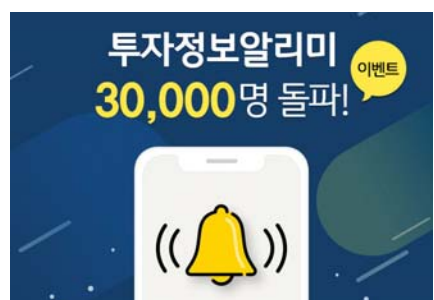
현주미 신한금융투자 디지털사업본부장은 “RPA는 기존 전산개발의 제약을 보완하고 다양한 업무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적용방식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적용업무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에 RPA를 적용한 KB증권은 현재 서버급 RPA 도입을 준비중이다. 서버급 RPA는 PC 기반 RPA와 달리 직원의 PC사용과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지않고 24시간 운영 가능해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대상을 크게 확대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KB증권은 2017년 말 RPA를 도입해 약 100여개 업무에 적용해 연환산 업무 시간 기준으로 약 2만5000시간(2019년 7월말 기준)을 절감하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간 감축 효과를 보여줬다. 한양증권 또한 RPA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 반복업무를 전산화하고 인력운용 효율성 및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해 직원들의 실질적 주 52시간 근무와 워라밸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B증권, 투자정보 얻고 상품권도 받자

‘투자정보알리미’ 사용자 3만명 돌파 이달까지 신규·기존 고객 이벤트



KB증권은 ‘투자정보 알리미 서비스’ 사용자 수 3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투자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KB증권 대표 모바일 앱(MTS) ‘M-able’을 통해 장중 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무료 푸시(PUSH) 알림 서비스다. 이번 ‘투자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고 편의점 상품권 받아가자’ 이벤트는 9월 말까지 투자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신규 고객 중 추천된 900명에게 5000원 상당

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키맨과 함께하는 투자 미식회’ 이벤트는 투자정보 알리미를 받는 모든 고객 중 추천된 10명에게 민재기 차장의 투자 미식회(투자설명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영지 기자

신한금투, EMP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신한BNP글로벌밸런스EMP펀드’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EMP(ETF Managed Portfolio)는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해당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문을 받아 신한BNP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신한BNP글로벌밸런스EMP펀드’는 장기 성과와 방어력이 검증된 6개의 글로벌 핵심자산에 분산투자한다. 6개의 핵심자산은 미국채, 투자등급회사채, 미 달러, 금, 저변동성 주식과 퀄리티(기업의 질적지표가 우수한) 주식이다. /김유진 기자

인도네시아 ‘팜농장’ 재평가, 자산가치↑

株라쿨라의 종목 제이씨케미칼

두 차례 상한가 기록하며 추가 급등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영향

“지난 8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신수도 이전지에 제이씨케미칼의 팜농장이 위치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한 수석연구원은 9일 ‘팜농장’ 사업의 재평가로 ‘제이씨케미칼’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제이씨케미칼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 연료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두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이씨케미칼이 운영 중인 팜농장의 부동산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제이씨케미칼은 수도 이전지인 쿠타이카르타노가라군(郡) 내에 1만800헥타르(ha) 규모의 팜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성한 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대신 영농권(HGU), 건물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사용 목적

에 따라 토지 권리를 부여해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차권과 토지사용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면 담보설정과 매매도 가능해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제이씨케미칼 팜농장은 현재 사업허가(IUP)와 구역허가(IL)를 취득한 상태다. 담보설정과 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영농권(HGU) 승인 시 택지변경 등이 가능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1만3100ha의 토지는 조만간 HGU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9배 규모의 영농권(HGU) 승인이 임박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토지를 수용해도 주변시세와 사업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세계 3위 팜유 소비국인 중국이 팜유 수입에 대한 쿼터제 폐지를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연간 팜유 수입량은 지난해 533만톤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670만톤 수준으로 26%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이 리서치알음은 긍정적 인 투자외견과 함께 적정주가를 5400원에서 6200원으로 상향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삼성증권, 연휴때 해외주식 거래 가능

삼성증권은 올해 추석 연휴에도 고객이 해외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데스크’를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연휴 기간 개인 고객뿐 아니라 운용사, 연기

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해외주식 데스크로 연락하면 전문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으로 해외주식을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유진 기자